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빛나고 높은 보좌와(찬27/새27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주용중 집사 2부/이중교 장로 3부/이 청 장로 4부/김유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작곡 손경민)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27-30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16-20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게임 체인저(12) 내로남불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그가 너를 바라본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너 시험을 당해(찬342/새395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구(Google)선생, 유(Youtube)선생 시대 유감

Regretful Generation of Teacher Google and Teacher YouTube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지나온 인생을 떠올려 보면 누구에게나 뵙고 싶은 선생님이 한두 분 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해 주셔서 현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쳐 주신 분으로서, 스승의 날이면 마음에 사무치게 떠오르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 스승이 계시는데, 목회와 구속사적 설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스승, 김한요 담임목사님 그리고, 부부란 어떤 관계여야 하고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대니얼 오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시고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셨던 저에게 IT기술에 대한 소질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개인적으로 컴퓨터 관련 기술을 가르쳐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껏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은 지식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아니라, 제 인격과 삶을 통해 사랑으로 관심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들이 온라인에 넘쳐나면서 요즘 시대의 스승은 구(구글, Google) 선생님과 유(유튜브, Youtube) 선생님만 있으면 되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영, 혼, 육을 소유하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비인격적인 AI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계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 영적이지 않은 요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의 본질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느껴지는 사랑과 전수, 격려와 선한 영향력 등인데, 점점 그러한 요소가 사라지는 듯하여 몹시 안타깝습니다.

디모데는 최고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만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과 기도로 성도들을 돌보는 참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열두 제자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 또한, 엘리자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아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Google) 선생과 유(Youtube) 선생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지만, 베델교회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심과 우리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결단하며,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인격적 요소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린 시대에,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이 시대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베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As we look back on life, we all have a couple of teachers that we long to see. Some teachers helped us find our path in life. They had great influence in the person that we are today. These teachers come to mind on every Teacher Appreciation Day. I too had many teachers in my life. Jesus is my teacher. Personally, our senior pastor Rev. Brian Kim has been a teacher who taught me about ministry and what salvation sermon is. My wife and I also have a missionary Daniel Oh and his wife who taught us the relationship of a married couple and what a family is, when we were going through a turbulent time in our relationship. I am truly grateful to Teacher Lee Jong-gi who was my 6th grade and science teacher. He discovered that I had a knack for IT and personally taught me computer technology. Looking back, all these teachers I fondly remember not only delivered knowledge, but they showed me love and interest in my character and life.

With today's advancement in technology, in this big data era, huge knowledge and data are being accumulated online, making Google and YouTube the only teachers seem needed in this new generation. We are created to live in spirit, mind, and body. We have human relationships. Instead, our relationships are formed, dependent on impersonal AI algorithms, limiting out freedom. Even in the field of faith, it is filled with elements that are not spiritual. The core of a true teacher is not in the delivery of knowledge, but in love and deliverance of encouragement and influence. I am saddened that we live in a time where those elements seem to disappear.

Timothy was able to walk the true pastorship of caring for his congregation with his genuine faith, tears, and prayers because he met his spiritual teacher, Paul. Twelve disciples were able to see the heavenly kingdom and give up their lives for the gospel because they met Jesus, the true teacher. Elisha was doubly inspired by Elijah and became a spiritual leader of his time. Although we are living in a trendy time of teacher Google and teacher YouTube, Bethel Church community, by believing the Bible and knowing that Jesus is our true teacher, must resolve to build a church where we are each other's teachers by godly influences. In this age where impersonal elements have become the norm, may our Bethel Church community be able to accomplish the responsibility of being a teacher by being responsible for one another in the image of Christ.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2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내로남불

(마 5:27-30)

1. 내가 처음으로 받은 성교육이 있다면 언제입니까?(27절)

적용하기



2. 아가서에서 부부의 성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아 4:1-15)

3.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죄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28절)

4. 간음죄를 이길 처방은 무엇인가요?(29-30절) 어떻게 그 유혹을 '내버릴'지 아래 3가지의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1) _____ (엡 5:3-5)

2) _____ (시 119:9)

3) _____ (약 5:15-16)

교육부 특집

골든벨 퀴즈 대회

3개월에 한 번, 유치부부터 5학년 학생들은 골든벨 성경 퀴즈대회를 합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따라 나오는 듯한 어린 자녀들이지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되는 은혜를 아이들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기준이 없어진 시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그것이 곧 기준이 돼버린 이 시대의 한가운데를 사는 자녀들을 인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골든벨 성경 퀴즈대회, 은혜의 현장을 베델의 모든 성도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K-1에서 5학년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마다 석달에 한 번 골든벨(Golden Bell)이 열립니다. 커리큘럼의 큰 단원이 끝날 때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배운 내용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라틴어로 'Test'라는 말에는 Celebration of Knowledge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신나고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 얼굴이 발그레해질 정도로 긴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골든벨이

열리는 예배 현장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열기로 매번 뜨겁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번엔 더 잘하고 싶다는 표정이 아이들의 얼굴에 역력합니다. 어른인 선생님들이 오히려 도전받고, 아이들의 기억력과 흡수력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주일마다 배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자녀들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승진 전도사(유년부)

'골든벨'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란색 모자를 쓴 학생들이 퀴즈를 맞히던 텔레비

교육부 TA 소개

TA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석미주



석주희



석지윤



박은미



박은선



박정원



변은송



변준수



정종호



주 안



주 연



천준우



황서윤



Angela Jeon



David Han



Hannah Lee



Jake Hwang

포근한 누나처럼, 다정한 언니처럼, 재미있는 형처럼, 든든한 오빠처럼, 영아부와 유아부에서 섬기는 귀한 TA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영아부: 석미주, 석주희, 석지윤, 장유주, Claire Jung, Tabitha Kim

유아부: 박은미, 박은선, 박정원, 변은송, 변준수, 주안, 주연, 이수인, 정종호, 천수경, 천준우, 천준석, 황서윤, Angela Jeon, David Han, Hannah Lee, Jake Hwang, Lily Jang,

교육부 특집

선생님께 기쁨과 감사드려요

전 속 화면이 기억나고, 최종 우승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문제를 풀던 학생들의 비장한 눈빛도 떠오릅니다. 지난 주일, 초등부에서 Winter/Spring 골든벨 퀴즈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긴장하는 학생들, 즐거워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와 선생님들의 마음도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와 화이트보드를 나누어 주고 '골든벨' 진행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준 뒤, 설교 시간과 공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위주로 퀴즈를 냅니다. 이번 3개월간은 '모세와 광야'라는 주제로 설교와 성경 공부가 진행되었습니다. 골든벨 대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 그리고 위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과 공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지만 2부, 3부 모두 4번째 문제에서 많은 아이가 탈락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미 읽은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한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 참여한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패자 부활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시 즐겁게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상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꾸러미를 전달했지만, 진짜 '골든벨'의 목적은 달콤한 과자와 간식 아니, 그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연 전도사(초등부)

지난 3월, 올해 첫 골든벨 바이블 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연습 문제를 가지고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일 아침, 너도나도 조그마한 고사리손으로 연습 문제를 한 장씩 손에 들고 마지막 퀴즈 준비에 여념이 없는 K-1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예뻐던지요. 이 아이들을 도와 옆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부모님의 열정에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주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베델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정가영 전도사(K-1)



바이블 클럽 후기

신약 통독

시애틀에서 30여 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작년부터 라구나우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지만, 마음속 허전함과 무기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베델교회로 발을 내딛고 매주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는 은혜를 받았고 성경 통독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으로 나의 묵상은 날로 깊어지며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은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 더 간절히 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제 삶과 적용되는 자신을 보며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던 눈물과 기쁨의 찬양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통독을 통하여 제 삶의 관점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귀를 열어 듣고 깨달아 변화되길 바라며, 베델교회 동역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경란 집사

모세오경 통독

두 번째 30일 성경 읽기를 마치도록 승리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연초에는 성경 일독, 아니 마음만 먹으면 이독까지도 하리라 다짐하곤 하지만 바쁜 일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율법으로만 외당던 말씀이 차츰 순종과 회개로, 내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조금씩 다가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건너뛰고, 빠고 읽기를 반복하며 읽었던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내 삶에 주시며 모세오경에 다시금 도전해 보리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매일 5장씩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작은 도전을 만들어 주셨고, 정해진 시간 없이 내 시간에 맞추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주셔서 여행에서 첫 장 읽기를 시작했고 '5장씩' 마음을 다잡고 끝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읽기는 앞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그날 감명 깊게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고, 기도로 끝내는 방식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분주한 매일의 나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골라 읽는 것이 아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내 삶에서 그날의 말씀을 적용하여 받아들이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30일이지만 새 마음으로 다시금 바이블 클럽을 신청하며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선희 권사

K국 선교 후기

주님 없는 선한 그곳에



K국... 홍길동도 아니고 나라 이름도 선교사님 호칭도 맘껏 부를 수 없는 나라. 이곳에서 25년간 치과로 BAM 사역을 하신 분이 구한 영혼이 단 두 명이란 말에 팀원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김새에서 오는 친근함과 수줍은 듯 적극적으로 다가와 안기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하지만 복음에는 마음이 닫힌 나라. 선교사님의 K국을 향한 열정, 그래서 더 느껴질 외로움과 이 나라 영혼을 위해 저절로 기도의 무릎이 꿇어집니다.

김명희 권사

새해가 되면서 아내가 "이젠 선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서 k국 선교사로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5일을 앞두고 장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아내와 함께 준비했던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아내는 저를 설득해 혼자라도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팀원들의 합심 기도로 떠나는 날 오전 하관 예배까지도 모두 잘 끝내고 당일 오후에 팀원과 합세하여 k국을 향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k국에서는 한 사람도 마스크를 하지 않은 모습에 놀랐지만,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위한 소망센터 오픈 세

머니를 잘 수행해냈고, 마침내 지역 유지와 주민들의 대환영으로 선교사님 부부의 지난 8년간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고 장애우 300여 명을 위한 위로의 카니발 파티는 팀원과 장애우 아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뻐 즐기는 탄성의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어디를 가도 피곤치 않도록 부담없는 농담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부부, k국 13인 선교팀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신 김병인 장로님 부부, 피곤해도 큐티와 합심 기도를 꼭 챙기시는 주성필 목사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수고하신 박주남 전도사님과 김주홍 집사님의 실력, 결혼 50주년을 선교지에서 맞이하신 노익장 잉꼬부부 정지일 장로님 부부, 부족한 재료라도 팀원들 식사와 간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신 박재영 집사님, 팀원을 위해 힘든 일에 앞장서 주신 이종선 집사님, 어떤 일에도 감초 역할 해주신 이혜경 권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오랜 팬데믹에서 해방되는 은혜로운 선물, 감동의 k국 선교였습니다.

최영수 장로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일본어 예배 창립 9주년 감사예배
ベテル日本語礼拝9周年おめでとう

11년 전 소수의 일본인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한 일어 성경 공부 모임은 2년 뒤인 2013년 4월, '베델 일본어 예배'의 이름으로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9년의 세월 속에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공동체에게 2년의 팬데믹 기간은 가혹한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방의 언어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길었던 숨죽임의 시간을 지나, 끝내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함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이들은 아프고 나서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지난 일본어부 안에 피어나기 시작한 소망과 기대가 새로운 성장을 알리는 신호이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이제 유아기를 지나 유소년기를 맞이하는 베델 일본어부는 더 나아가 청소년기로, 장년기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갈 채비로 들떠있습니다. 이 모든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일본어부 주일예배는 창립 9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손님들의 축하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베델 일본어 예배의 9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구원의 길을 찾아 한국인들의 품속에 들어온 믿음의 일본인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 감사의 예배가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엡2:16) 우리 주님을 향한 화목 제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저 가는'(엡2:22)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의 자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 ▶ 일시: 5월 15일 오후 1시 15분
- ▶ 장소: 베델교회 임마누엘 채플
- ▶ 문의: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I	5/22: ①부-정병철	②부-이해원	③부-전승윤	④부-오새아
	5/29: ①부-조원태	②부-조관희	③부-권조원	④부-윤세희
	6/5: ①부-정우영	②부-천승현	③부-최규덕	④부-윤여훈
헬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5,6월) I	5/21: 박관수	5/28: 박기승	6/4: 박기준	6/11: 박기홍
강단꽃(5,6월) I	5/15: 이충경	5/22: 임명신, 장지선	5/29: 송미선	6/5: 지효정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 의사),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팩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익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2022년 베델 선교 바자회**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로 쓰이는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도네이션하고 직접 제작한 많은 품목들이 있으니 오셔서 즐거운 축제의 시간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지 참조)
일시/장소: 5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1시, 코트야드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선교 다큐 상영회** K국의 호세아/그사랑 선교사와 후원하고 있는 결연 아이들의 스토리를 담은 선교다큐 '안녕! 누를란, 쏘눈' 이 5월 21일 토요일 헵시 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상영됩니다. 이날 현장 상영 이후에는 선교 보안상 온라인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두 편으로 나눠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생동감있게 선교지의 스토리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감동의 자리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 **단기 선교팀 모집** 7-8월 베델의 파송 · 협력 선교지에서 어린이 VBS,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코스타리카(금상호/김미경 선교사)

선교기간: 7월 4일(월)-9일(토) 문의: 오세영 집사 (949)892-9929

- 캄보디아(황순현/황현주 선교사)

선교기간: 7월 5일(화)-7월 13일(수) 문의: 임동영 장로 (323)356-0521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선교기간: 8월 1일(월)-9일(화) 문의: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베트남(성결/양선 선교사)

선교기간: 8월 11일(목)-18일(목) 문의: 정현근 장로 (949)310-1098

◆ **교회학교 스승의 주일 안내**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스승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다음세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교사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토요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함께 섬겨주실 교사와 TA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매주 토 오전 10시-오후 2시, 6월 18일(토)까지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 **영어 중고등부(BYM) Fishfest 2022** Hillsong, Bethel Music 등의 예배팀이 참여하는 부흥집회가 열립니다. 자녀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각 부서 담당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시/장소: 6월 11일(토) 오후 5시, FivePoint Amphitheatre
문의: 중등부-천승현 집사 (512)947-7291, 고등부-John Yeo 목사 (818)270-5454

◆ **베델 일본어 예배 9주년 감사예배** 일본어 예배가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팬데믹이라는 성장통을 지나 이제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접어드는 일본어예배의 아홉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많은 축하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일시/장소: 5월 15일(주일) 오후 1시 15분, 임마누엘 채플
문의: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 **유년부 예배 장소 변경 안내** 유년부실 수리가 마무리 되어 오늘(5월 15일)부터 유년부 자녀들은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마미 앤 미(Mommy & Me) 학교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마미 앤 미 학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교회 버스 운전면허 클래스** 교회 버스 운전으로 섬기기 원하셨지만 Commercial B 면허가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필기, 실기시험까지 면허를 취득하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오픈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 주차 사무실 앞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최길석 집사 (213)663-3667, 서우석 집사 (213)435-3690

◆ **베델 기도사역(Do Dream) 오픈 채팅방 운영** 함께 공동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카카오톡에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베델기도사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또는 모바일 인터넷 창에 prayers.bkc.org를 치시면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Join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아버이 주일 선물 안내** 80세 이상 어르신 중 아버지 주일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1부 예배 후, 코트야드 부스에서 수령하시고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아버이 주일 사진 수령** 아버지주일 사진을 미수령하신 분들은 예배 후 코트야드 부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 Subsplash 중단 예고** 기존에 온라인 헌금방법 중 Subsplash 서비스는 6월 15일(수)부터 중단됩니다. Tithely는 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헌금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수민 집사 (949)854-4010 ext. 112

◆ **위로해 주세요**

故 김현숙 성도님(박병호 집사의 모친, 김정희 집사의 시모)께서 5월 7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Romance for Me, Adultery for Others (Matthew 5:27-30)

1. When was the first time you received sex education, if any? (v. 27)

Apply to Life



2. What thought comes to you when you read the verses in Song of Solomon praising the beauty of sex between husband and wife? (Ref: Song 4:1-15)

3. In our verse today, it says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Specifically, what sin is committed when someone has a lustful heart? (v. 28)

4. What are some prescribed ways we can resist and overcome sins of adultery? (v. 29-30)
Describe three ways by which you can resist the temptation of adultery.

1) _____ (Ref: Eph 5:3-5)

2) _____ (Ref: Psalm 119:9)

3) _____ (Ref: James 5:15-16)